

2024
고3
6월 학평

2024년 시행 고2 6월 학평 국어 문학 |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어머니('늙음'을 의미하는 인물)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부모 세대에 대한 '나'의 그릇된 관념. '생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손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찾곤 했다**(‘나’가 생각하는, 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어머니의 행위 ①). 이 때문에 우리 집 전 기باط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다.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며 **심하게 며느리를 닦달했다**(‘나’의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나’가 생각하는, 생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어머니의 행위 ②).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어머니의 완고한 태도가 드러남.).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 생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어머니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생에 대한 집착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보전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공공 앞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하였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참고 견답)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아내를 박대함)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총이**(무언가를 하다 중도에 그만두어 이루지 못한 사람)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나'의 인식)로 살아 있었다.

▶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나’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달라진 시기).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시아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내**(‘젊음’을 의미하는 인물)의 짜증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어머니의 냄새’에 대해 ‘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 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멀치젓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짹조름한 오줌버께 지린내, 고리착지근한 밭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시금털털, 고리탑탑, 쓰고 시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나’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

움질을 하다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아내는 처형의 병구완을 핑계로 처형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게 됨.)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 돌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아내가 젊은 시절 어머니의 힘든 삶을 공유하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다**(아내의 반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 ‘나’의 상황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아내의 상황에 신경쓰지 않는 어머니).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네 처 **또 아프냐?**(예전에도 아프다는 핑계로 아내가 어머니와의 식사를 피했음을 알 수 있음.)”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두뺨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똥맛게 물었다.

“왜? 에미한테서 냄새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제잉. 그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면 워디 사람 사는 집이간디, 그것이사 귀신이 사는 집이제잉.”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

“아주 심해요(세대 간의 갈등을 의미).”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어머니의 냄새’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나’).”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느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디.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녀.”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말어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며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해댔다.

“이놈아, 에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에미가 자식 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어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끝을 후벼 찢었다**(‘냄새’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아픔을 느끼는 ‘나’).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어머니의 냄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희생하면서 몸에 밴 세월의 냄새임. ‘어머니의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니…….

– 문순태,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세태 소설
- 제재: 어머니의 향기
- 주제: 어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이해
- 특징
 -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술함
 - 어머니의 냄새에 대해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함

이해와 감상

노인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향기’로 표현하며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을 통해 세대 간 갈등과 노인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작되는 고부간의 갈등을 아들이자 남편인 ‘나’가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담은 소설이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생에 대해 집착’하는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냄새의 변화로 표현하였는데, 냄새를 표현하는 모든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할 정도로 냄새에 대한 묘사가 강하다. 또한 살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머니와 아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냄새로 표현되는데, 아내는 ‘나’에게 어머니의 생활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나’가 느끼는 집 안의 냄새 역시 어머니와 아내의 세력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냄새’는 인물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 또는 삶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260-1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618

가격 500원

값 500 원

55710



9 791137 772601

ISBN 979-11-377-7260-1 (기타)